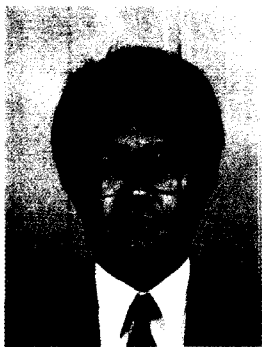


# 文酒半生記



김영철  
〈건국대 국문과 교수〉

「文酒半生記」는 일찌기 한국의 국보1호를 자처했던 우애 양주동 선생이 술과 더불어 살아온 인생역정을 활달한 문체로 엮어낸 수필집 제호이다. 필자가 감히 양주동선생의 酒緣과 學緣을 따라갈 수야 없겠거늘 그 이름을 잠시 빌려 술과 함께 살아온 짧은 내력을 펼치고자 함이다.

필자의 태생이 술과 거리가 먼 체질이건만 문학과 시를 공부하다보니 자연 酒友를 평생의 반려로 동반해온 것 같다. 문학이란 것이 궁극적으로 인생론일진대, 또한 술없이 인생을

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문학과 술은 숙명적인 인연일 수 밖에 없을 것이리라.

지금이야 고등학교 학생들도 백일주니 생일 파티니 해서 술마시는 일이 흔하지만 엄격한 제복지질의 고교생이었기에 술마시는 일은 꿈도 못꾸었고 술이라는 것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 들어가서였다. 신입생 환영 및 국문과 단합대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마신 막걸리 한사발이 생애 최초의 시음이었다. 원래 한잔만 마셔도 빨개지는 체질이라 온통 홍당무가 되어 가쁜 숨을 내쉬던 갓스무살 인생 초년병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혜화동 골목 어디메, 「쌍과부집」이라는 술집이었던 것 같다. 하도 이름이 특이하여 첫날부터 뇌리에 각인된 술집이었다. 술과의 첫 만남 그것은 기쁨도 슬픔도 아니고 그저 당황과 혼란스러움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순결을 잃은 허망함처럼 알 수 없는 외로움으로 나를 가득채웠다. 윤홍선의 「첫술」은 그러한 나의 첫경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그대의 이름속에 잠겨  
모든 혼란이 시작되었듯이  
모든 깨달음도 만났다  
열여섯의 푸른 밤  
그대의 주술에 걸려  
은뿔 속의 피, 처음으로  
뜨거운 밤이었다

내속의 피 아닌것 모두 쏟고  
 겨우 머리 쳐들면  
 밤하늘의 별이 흐리게 흔들렸다  
 외로움 처음으로  
 이길 수 없었다  
 그대는 내게 숨어들어  
 절망의 끝까지 함께 걷고  
 다시 속삭였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윤홍선 「첫술」-

막걸리 한잔을 이겨내지 못하고 토해냈던  
 첫술, 첫경험의 쓰라림, 그리고 그 허망함과  
 외로움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영원한 방랑  
 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던 것이다.

'Trinken! Studiren! Lieben!' 「황태자의 첫  
 사랑」에서 황태자의 대학시절의 삶의 지표가  
 됐던 마시고, 공부하고, 사랑하자, 그렇게 나의  
 대학 시절은 시작됐던 것이다. 문학을 사랑하  
 고 사람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서 나는 처음으로 눈떴던 것이다.

대학시절은 참으로 가난했던 시절이었다.  
 1970년대, 지금은 산업화시대로 규정되고 있지  
 만 그 과정에서 혹심한 경제 불균형이 노정되  
 던 때였다. 군복을 염색해서 입고 다녔고 까  
 치담배를 사서 피우던 암울한 시대였다. 그래  
 도 다행히 아르바이트는 허용되어 너도 나도  
 과외지도에 매달려 모자란 책값, 술값을 메꿔  
 나가곤 했다. 모처럼 아르바이트 월급이라도  
 타는 날이면 명동으로 호기있게 진출하여 그  
 때는 고급술인 생맥주를 맛보곤 하였다. 옛날  
 명동 국립극장 골목길에 있던 「카이자 호프」  
 가 당시 대학생들의 휴식처였다. 그것도 한두  
 달에 한번 주머니 사정이 뻘하여 그나마 마음  
 놓고 갈 수 있었던 곳은 지금 교보문고 옆 골  
 목에 있는 「열차집」이었다. 양파를 왜간장에  
 절이고, 조개젓이 필수품으로 나오는 막걸리집

이었는데 빈대떡 맛은 정말 일품이었다. 그곳  
 에서 우리 악당들은(대학때 만난 '엔담' 회원  
 들)은 인생과 사랑과 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70년대 음울한 사회현실에 대해서 열변을 토  
 해내곤 했던 것이다. 김지하의 「오적」, 전태일  
 의 분신, 10월 유신, 계엄령과 위수령, 동아일  
 보 광고사태, 「영자의 전성시대」와 「별들의 고  
 향」, 미니스커트와 장발단속, 밥 덜러와 마리  
 화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절망하였다. 의례히  
 술자리가 파하면 열차집 골목을 누비며 '아침  
 이슬'과 '선구자'를 흥얼거리며 시대의 선각  
 자이어야 함을 자각하곤 하였다. 몇년전 대학  
 원 제자들을 데리고 선생님의 학창시절의 꿈  
 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열차집」엘 다녀온  
 적이 있다. 참으로 기적적으로 「열차집」은 그  
 곳에 남아있었다. 이렇게 해서 또 술돈이 떨어  
 지면 이제는 안주없이 술만 사는 것이었다. 이  
 름하여 깡술. 몇 명이 주머니를 털어 소주 몇  
 병을 사들고 캠퍼스 풀밭에 앉아 낮달을 안주  
 삼아 낮술을 마시는 일이다. 옛날 자란고비가  
 조기 한 마리 걸어놓고 밥순간을 들었듯이 정  
 말 낮달을 걸어놓고 술한잔 마시고, 달한번 쳐  
 다보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래도 우리 모  
 두는 행복했다. 젊음이 있고 미래가 있고 사랑  
 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지 않은 순수한 고  
 민, 우리 모두는 그 고뇌의 바다의 젊은 주인  
 공들이었다.

우리는 오후 다섯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결론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타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문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 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불도없이 차가운 하숙방에 앉아 마시던 막걸리 한잔, 낫달을 안주 삼아 마시던 대낮의 깡소주 한잔. 그래도 그것은 우리들 청춘의 불을 당기는 연료였다. 그 청춘의 불을 지피며 우리는 미래에 펼쳐질 이상의 낙원을 꿈꾸곤 했다.

이것도 마지막 술돈이 바닥나고 주머니에 먼지만 날릴때가 되면 최후의 휴식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곳은 쌍과부집이었다. 이름 그대로 중년과부 두분이 운영하던 허름한 술집이었는데 자식같은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외상술을 마음놓고 먹게하던 집이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손목시계, 책, 심지어 학생증까지 맡겨놓고 외상술을 먹을 수 있었다. 때로는 단골손님이면 믿음 하나로 외상이 가능하기도 했다. 실로 쌍과부집은 가난한 대학생들의 천국이였다. 그 훈훈한 인정 그것은 아마 70년대 엇기에 가능했는지 모른다. 각박해진 요즘 외상술을 먹는다는 일이 가능한 것이겠는가.

화려한 대학로의 네온사인 불빛에 밀려 그 훈훈했던 인간의 場도 사라진지 오래다. 대학가 주변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명물주점은 역사적인 명소로 영구히 보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추억을 상실한다는 것만큼 큰 손실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진정 그 시절에 마시던 술은 술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독특한 뚝배기잔에 한껏 정을 담아 가슴을 채우던 막걸리. 그속에 진정 사는 맛이 있었고 인간의 멋이 있었다. 맛과 멋을 알던 시대, 진정 술권

하는 사회의 사람의 향기가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어디든 멀찌감치 통한다는  
길옆 주막  
그 수없이 입술이 닿은  
이빠진 낡은 사발에  
나도 입술을 댄다  
흡사 정처럼 훑아오는  
막걸리 맛  
여기 대대의 슬픈 노정이 집산하고  
맷고도 쓴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여!  
소금보다 짜다는 인생을 안주하여  
주막을 나서면  
노을 비낀 길은  
가없이 길고 가늘더라만  
내 입술이 닿은 그 사발에  
누가 또한 닿으랴  
이런 무렵에

-김용호 「주막에서」-

이처럼 김용호 시인이 노래하고 있듯이 소금보다 짠 인생을 안주삼아 마시던 막걸리는 쓰디쓴 인생을 정화시켜주는 여과제요, 고단한 삶을 풀어주는 구원의 손길이었다. 닳고 닳아이가 빠져 버린 막걸리 사발, 그리고 그 사발에 닿았던 수많은 군상들의 입술과 인생. 그렇게 해서 그들은 모두 한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 대학 시절 잊을수 없는 술추억은 은사님들과의 만남이다. 설날때면 의례히 선생님댁에 세배를 가곤 했었는데 사모님이 빗어 내온 과실주에 취해 눈썹인 성북동 언덕길에 엉덩방아를 찧던 기억이 새롭다.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문공부 장관을 지냈던 정한모 선생님, 소설가 전광용 선생님, 두분 선생님댁 방

문은 필사의 각오를 해야만 했다. '네놈들 두 발로 걸어 들어왔지만 나갈때는 반드시 네 발로 기어나가야 한다' 고 기업을 토하던 전광용 선생님의 카랑한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 과실주에 대취해 네발로 강아지처럼 영금영금 기어 나오면서 선생님의 하해와 같은 인정과 사랑을 뼈속깊이 아로새기곤 했던 것이다. 참으로 전설같은 시절의 이야기이다. 지금 내가 그 선생이 되었지만 진정 내가 학생들에게 은사들에게 받았던 그런 사랑과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지 부끄럽다.

그렇게 대학시절은 흘러가고 남녘의 해군도시 진해에서의 군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3년간의 해군장교 시절 그것은 내청춘의 종말이었다. 청춘의 장례식. 우울한 종말이었지만 그래도 술이 있음으로 해서 살아 숨쉴 수 있었다. 해군사관학교 국어교관. 생도들에게 국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내 임무였다. 벚꽃이 눈처럼 휘날리는 봄날, 그 꽃비속을 헤집고 출근하던 기억은 지금도 아름다운 수채화로 각인되어 있다. 출근길이 마침 해안도로였는데 아름답디 벗나무에서 쏟아져 내린 꽃잎이 자전거 바람에도 풀풀 일어나 나비처럼 날아다니곤 했다. 푸른 바다와 하얀 꽃비. 그속을 달리는 자전거 위의 청춘, 그것이 그시절의 나의 초상화이다. 제복속에서 조금씩 야위어 가는 청춘과 함께 나는 삶의 허무를 키워가고 있었다. 해군사관학교 바닷가를 거닐며 다짐하던 수많은 나의 약속들, 그 빛나는 순수의 언어들 이 그나마 나를 지탱해준 정신적 파수꾼이었다. 그 지독스럽게도 고독하던 제복시절에 또 하나의 위안은 음악과 술이었다. 대학로의 '하림다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흑백다방'이 있었고, '쌍과부집' 같은 따뜻한 인정의 '송정설주'가 있었다. 그래서 진해는 혜화동 대학로를 그대로 옮겨놓은 느낌이었다. 송정설주는 막걸리 대신 생맥주를 파는 곳이었다. 중

앙극장 네거리 모퉁이에 있던 자그마한 술집이었는데 술값만 받고 안주는 완전 무료였다. 아마도 가난한 군인들 주머니에 대한 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였던 것 같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그래서 마음이 꿀꿀해질 때면 혼자서 불쑥 찾아가곤 하던 안식처였다. 야위어 가는 청춘과 과일속의 씨같은 고독을 안주 삼아 쓸쓸히 잔을 비워내곤 하였다.

행운을 빌며  
안녕을 빌며  
부딪히는 술잔

잔은 타인의 충족을 위해  
스스로를 비운다  
비우기 위하여 채우는  
모순의 공간  
잔은 결코 외롭지 않다  
비어있는 그것이  
충족이므로

이 밤에도  
외로워서 술을 드는 인간이여  
부딪혀라 술잔  
잔은 빈 것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오세영 「그릇」-

그렇게 나는 고독한 나와 술잔을 부딪혔다. 잔이 빈 것으로 돌아가야 하듯이 내 마음을 비운채 허허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곳은 흑백다방이었다. 이름 그대로 흑백사진의 풍경을 담아놓은 듯 고즈넉한 음악공간. 그런날이면 '운명'이나 '비창'이 제격이었다. 마무리 시간이 지나도록 자리를 뜨지 않아 종업원의 눈총을 받아가며 들었던 영혼의 메아리들, 지금도 청춘의 넋이 되어 뇌리를 스치곤 한다. 흑백다

방을 나와 터덜터덜 자가용 자전거를 끌고 귀가길에 나서다 맞닥뜨리게 되는 포장마차. 마지막 딱 한잔만 하는 스스로의 유혹에 넘어가 꿈장어를 안주하여 소주 몇잔을 들이키면 또 불쑥 외로움의 손님이 찾아든다. 그럴때면 자전거를 세워두고 통제부로 향하던 철로길에 올라 방황하는 짐시처럼 오르락 내리락 부질없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술에 취해 철로길을 오르내리던 슬픈 빼에로. 그것이 해군장교 시절의 또 하나의 내 풍경이었다. 허무였을까 절망이었을까, 나를 따라 다니던 그 긴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청춘의 계절은 내걸을 조금씩 떠나고 있었다. 그리운 이의 눈속에 들어가서 늘 깨어있는 한 방울의 술이 되고 싶었던 시절. 그 그리움의 허기속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나던 고독과 허무, 그리고 한잔의 술, 그것들이 떠나가는 내 청춘의 쓸쓸한 소도구들이었다. 그렇게 진해시절은 마감되었다.

대구시절. 대구대 시절 이미 장년의 계절이었건만 그래도 가슴속엔 연약한 풀들을 키우고 있었다.

가슴속에 칼을 품은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가슴속에 연약한 풀들을 키우는 이들이  
밤마다 어둠을 바라보며  
싸늘해져 가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해  
잔을 비웁니다

-박상천 「술」-

가슴속에 칼을 품어야 할 나이건만 연약한 풀을 키우는 빼에로의 풍경 그대로였다. 돌이

켜 보면 청년교수이던 그 시절이 그래도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다. 제자들의 가슴속에 영혼의 맑음과 정신의 깊이를 새겨주기 위해 통과제의의 술자리를 종종 마련했던 것 같다. 맑은 물로 혼탁한 영혼을 씻어내는 세례의식처럼 한잔술로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행귀내고자 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시행착오였고 과장된 몸짓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순수한 노력이었다. 그때 만났던 제자들은 아마도 내가 가슴속에 키우던 연약한 풀들이었던 것 같다. 그 풀들이 자라 이젠 또 하나의 연약한 풀들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잔잔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한잔술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영혼들, 어찌면 그들은 나의 분신이었고 나의 꿈이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과 공간들로 하여 지금도 내 삶은 풍요롭다.

술과 문학이 없었던들 내 삶은 얼마나 단조롭고 건조했을 건가. 대학시절, 군대시절, 청년교수시절, 잿빛 하늘처럼 음울한 회색의 공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술이 있고, 문학이 있었기에 살아 숨쉴수 있었다. 지상에 잠시 소풍왔다 떠난 천상병 시인이 술은 유일한 기쁨이고 신의 은총이라고 노래했지만, 우울했던 젊은 베르테르의 시절에 술은 한줄기 위안이었고 구원이었다. 난해한 해체시를 즐겨쓰던 황지우 시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흐린주점에 앉아 편안한 시를 쓰고 있다. 그가 노래한 「어느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거다」에서처럼 '이제는 편안해진 가족부대를 걸치고 등뒤로 시끄러운 잡담을 답답하게 들어주면서 먼눈으로 술잔의 수위'를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술로 인해 아름다웠던 그 시간과 공간들을 조용히 되새김질 해보고 싶다.

## 唐詩 감상 / 韋應物的 詩

## 奇全椒山中道士

오늘 아침에 郡齋가 쌀렁하여  
 갑자기 山中의 나그네 생각난다.  
 골짜기에 내려가 쉼나무 주워  
 돌아와서는 흰 돌을 삶으리.

한 항아리의 술을 들고 가  
 비바람치는 저녁을 위로하고 싶구나.  
 그러나 낙엽이 빈 山에 가득하리니  
 어디서 그대의 자취 찾으리

今朝郡齋冷  
 忽念山中客  
 澗底束荆薪  
 歸來煮白石  
 欲持一瓢酒  
 遠慰風雨夕  
 落葉滿空山  
 何處尋行跡

# 날 말 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가로 열쇠 ♣

1. 음주운전은 ○○○○를 유발하기 쉽다
4. 순간적으로 비치는 빛
7. 팔만대장경이 있는 절. 합천에 있음
8.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슬픈사연이 얽힌 북
10. 우리나라의 상고시대에 북부지방에 있었다는 낙랑, 임둔, 현도, 진번의 네군
12. 어려움이 없음. ○○하다
13. 가운데가 잘룩한 전통타악기
14. 아직 피지 아니한 목화의 열매
15. 갓결혼한 여자
16.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음. 또는 그 이야기
18. 지난날 곤장을 치며 신문(訊問)하던 일

20. 문서를 똑같이 베껴내는 기계
22. 조선중기의 승려이자 의병장. 이름은 유정
24. 백성이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괴로움
25. 기적(汽笛) 따위의 소리. ○○소리 아득히 멀어지는 배
27. 그림의 떡

♣ 세로 열쇠 ♣

2.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줌
3. 움직이지 않게 정지시킴
5. 조선조의 두 번째 폐위 임금
6. 아름다운 말과 훌륭한 글귀라는 뜻
9. 논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 내는데 쓰는 나무로 만든기구. 'T' 자 모양
11. 뱃사공의 준말
13. 금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책
14. 손에게 대접하기위해 차려내는 다과, 차담
15. 신문을 발행하는 곳
16. 우리나라의 국호(國號)
17. 일을 하는 사람과 시키는 사람
19. 정권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정당
20. 과거의 체제나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풍조
21. 원고를 신문사나 잡지사에 넘
23. 경관(景觀)이 좋기로 이름난 곳
26. 어린이에게 들려주거나 읽히기 위하여 지은 이야기

☞ 해답은 105 페이지에